

다른 복음(갈 1:1~10) 2026년 2월 8일 화란한인교회

1.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상하게 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복음(heteron evangelion)”을 따른다는 것이었지요. 이걸 2천 여년 전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갈 1:6)**”라고 했습니다.
2. 표면적으로는 2가지 현상 때문이지요. 첫째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런 일이 속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너무 빨리 성공해 버렸다는 것이지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3. 그런데 바울은 이걸 두고 7절에서,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꼬집는 것인지, 위로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인은 바로 “교란” 때문이라고 못박는 것이지요. 그것도 그들이 아닌, “어떤 사람들”의 교란 때문이라고!
4.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속히 떠났다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소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스스로 배반의 길을 갈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들었던 복음에 어떤 모순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요. 거기에는 분명 “어떤 이의 교란”이 개입되었던 것입니다
5.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를 교란하는 그 어떤 사람을 향한 저주 만은 아닙니다. 이걸,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성도를 교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지요.
6. 이 편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래서 지금 그들이 복음에서 속히 떠나있는 상태라면,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작 이상한 것은, 다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 여전히 이 편지의 수신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7. 우리가 부르는 초대교회란, 대부분 바울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후 1천 5백 여년이 지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요. 이러한 유구한 교회의 역사가 시사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그것이 15세기가 지나서야 비로소 개혁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8. 마틴 루터는 중세의 그 긴 시간을 바벨론 포로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종교개혁을 맞이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다시 5백 여년이 흘렀습니다. 이 세월이 무얼 말하고 있습니까? 종교개혁 때 퍼진 “다른 복음”이 5 백년이 지났다는 것이지요. 그때 복음의 씨앗을 다시 뿌렸는데, 그 들판에 누군가가 가라지를 뿌린 것입니다.
9. 다시 7절을 보시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가 거기를 교란한 것입니다. 이 교란(ταράσσω)이란,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섞어 버리는 것이지요. 쉬운 말로, 물타기입니다.
10.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와, 또 그간의 교회의 역사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물타기가 처음부터 있어왔다는 것이지요.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도 덧뿌려진 것입니다. 참 복음 뒤에 물타기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 상태로 5백년이고 천년이고 지나온 것입니다.
11. 제 1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곡이

뿌려졌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성도들은, 형제라는 그들에게 가라지를 뿌리지요. 어떤 가라지? 피와 죽은 것을 삼가라는 “다른 복음” 입니다.

12. 말로는, 이방인 교회에게 아무것도 지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 결과를 받아 든 이방인 교회는 그것을 멍에로 받았습니다.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가 되는 조건으로 부과되었던 것이지요. 그건 율법이라 불리겠지만, 사실 “다른 복음” 이었습니다.
13. 종교개혁 시대를 다시 한 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이란, 1천 5백년의 전통을 가진 거대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들로 천년왕국을 이루던 시대였지요. 이것을 로마 카톨릭 스스로 “전통”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14. 로마 카톨릭은 그 전통의 힘으로 당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천당 가는 조건으로 돈을 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전파했습니다. 피째 먹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 죽은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건들이었지요. 이젠 분명 그들에게 멍에를 씌운 꼴이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이지요.
15. 여기에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가라지가 뿌려진 것을 보고는, 그 가라지들을 하나씩 뽑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물타기 한 것으로 보고, 그 물그릇 전체를 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집에서 선종하고, 개혁교회의 썬빙글리는 전쟁터에서 전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6. 어쨌든 이 2가지 종교개혁운동이 지향했던 것은, 여전히 교회에 남아서 다른 복음에 물든 사람들이, 이 교란을 극복하고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지요. 유식한 말로, Ad Fontes!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방향이었습니다.
17. 그러면 바울이 처음 전한 그 복음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이라고 했습니다.
18. 여기서 사울을 바울로, 또 그 바울을 사도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이 결과입니다. 그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변화가 사람이 창작해 낸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가 무얼 보고 해석해 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울의 사도 바울로의 변화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다는 소식입니다.
19. 그러니까, 사울을 바울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에게 새 사명을 부과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하셨는데, 이 거듭남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소식이 복음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러한 거듭남이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학문이나, 혹 어떤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20. 이때 바울은 이 복음을 주시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란, “우리의 아버지”라기 보다는, 이 문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지칭하지요. 다른 말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 그의 “아버지”라는 말이지요.
21.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고, 또 바울 역시 사도가 된 것 역시, 그가 하신 역사라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사울 역시 거듭나서 사도 바울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지요. 이것이 처음 복음입니다.

22.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지요? 우리를 자기 자녀로 거둬 태어나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드린 분은,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23.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이 길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길을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지요. 그러나 “다른 복음”은 우리가 해야 할 그 조건들을, 구원의 방편으로, 또 아버지로 부르도록 교란하는 것입니다.
24. 바울이 복음을 말하면서 중간에 갑자기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이 복음,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일로만,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고, 또 이 길 만으로만 그가 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직 그 분만을 찬양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25. 이 복음이 선포되자 마자 갈라디아 교회에는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누군가가 가라지를 뿌린 것이지요. 물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의 다른 길, 곧 우리가 선한 일도 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하고,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하고, 돼지 고기도 먹지 말아야 하고, 주일도 지켜야 하고… 하면서 인간의 유전과 전통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도입했지요.
26. 거기다가 또 덧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제사 지내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 술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는데, 담배 피우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복음은 맞는데, 꼭 다른 좋은 전통마저 없애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이것 역시 조건이자 멍에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7.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런 조건들을 율법처럼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을 향해 바울은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28. 사람들은 설교 말미에 적용부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딱부러지게 뭘 하라는지 제시하면, 속시원해 합니다. 그러나 그 적용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복받습니다~” 조건들이 되어서 다른 복음으로 흠뻑려질 수 있지요. 그러나 10절,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29.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헌금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게도 하겠지요. 만약 교회가 이런 어떤 조건들을 이행하라고 부추킨다면, 그건 heteron evangelion,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30.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자기의 독생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둬나게 하사, 우리의 참되신 아버지가 되셨다는 소식입니다. 교회는 오직 이 복음만을 선포할 뿐입니다. 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